

제1회 영국 교과서 내 한국관련 기술내용 확대 라운드테이블 Roundtable discussion on UK Secondary Education and Korea

□ 목적

- 현재 영국 교과서 내 한국관련 기술 내용 확인 및 문제점 파악
- 영국 교과서 내 한국관련 기술 내용 확대의 당위성 및 가능성, 실현 방안 논의

□ 세부 내용

- 일시 : 2019. 10. 16. (수) 오후 2시 ~ 4시
- 장소 : 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 참석자 : 연사 7명 및 임소진 교수(진행), 김수경 교육원장, 정혜라 실무관, 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대학원 및 학부생 30여명
 - Mr Aaron Wilkes(Oxford University Press 중등 GCSE 역사 교과서 집필 저자, St. James Academy Dudley 역사 교사)
 - Dr Michael Maddison(역사교육과정컨설턴트, Maddison Education Consultancy 원장, 영국역사협회 부회장, 역사 교사, 역사교과서 저자, 평가위원, 감사위원)
 - Mr Richard McFahn(서섹스 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교육과정 석사, 역사교육관련 서적 및 논문 저자, 역사 교사들을 위한 History Resource Cupboard 웹사이트 운영)
 - Dr Owen Miller(런던대 소아스 한국학과 교수, 한국역사전공)
 - Dr Ed Griffith(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Asia Pacific Studies 학과 교수)

- Dr Niki Alsford(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Asia Pacific Studies학과 교수, 국제 한국학 연구소 소장)
- 임소진 교수(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국제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
- Mr Sangwoo-Jason Rhee(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Asia Pacific Studies학과 학부 2학년 재학 중)

□ 라운드테이블 논의사항

○ 영국 교과서 내 한국관련 기술 내용 및 영국 역사 교육 실태

- 영국 중등 GCSE 및 A-Level 역사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 관련 내용은 세계대전 속 한국 전쟁에 국한되어 있음.
- 여러 Exam Board 중 AQA만이 ‘Conflict and Tension in Asia 1950-1975’ 라는 주제로 한국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룸.
- 중등학교의 역사 수업은 모든 주제를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학교와 교사의 재량으로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역사 주제들 중에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그 내용을 GCSE나 A-Level 시험에서 평가함.
- 국가교육과정에서 영국역사 및 지역사회의 역사 외 수업주제에 대하여 제시한 기준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세계 역사상 중요한 사건’임. 이와 관련, 예시 주제를 네 가지 열거해두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교사는 열거된 예시 주제 중에서 수업 주제를 선택함.

‘at least one study of a significant society or issue in world history and its interconnections with other world developments [for example, Mughal India

1526-1857; China's Qing dynasty 1644-1911; Changing Russian empires c.1800-1989; USA in the 20th Century] (History programmes of study: Key Stage 3,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Department for Education, September 2013)

- 국가교육과정에서 수업 주제에 대한 기준을 주고 예시 목록 외에도 다른 주제를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수업 주제 선택이 예시 주제들에 국한된 이유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르쳐온 전통이 있고, 무엇보다 수업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임.
 - 실제 여러 학생들의 경험에 근거한 발표에 의하면 GCSE와 A-Level 과정에서 다루는 역사 주제가 너무도 비슷하고 반복되어 지루했다고 함. 어느 학생은 선택연구주제로 한국 역사를 선택하였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교사의 반응에 실망함. 교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음.
 - 교사와 학생의 흥미와 호기심이 수업 주제로의 선택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및 수업을 운영할 교사의 교육, 콘텐츠 및 교수학습자료 등이 풍부하게 준비되어야 함.
- **영국 교과서 내 한국관련 기술 내용 확대의 당위성 및 가능성**
- 국가교육과정은 모든 교육의 대상에게 반드시 알아야 하고 필요한 것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음. 영국 역사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왜 확대되어야 하는지, 먼저 그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함. 한국이 더 좋은 모습으로 인식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닌 영국 학생들이 왜 한국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더 알아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영국 학교 교육이 GCSE나 A-Level의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에 집중되고 있으며 역사 교육과정 및 수업 시수가 축소되고 있음. Ofsted에서 강조하듯 더 넓고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국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GCSE 시험의 평가요소(Specification)의 내용이 영국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새로운 세상을 향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호기심을 해소하고 반응해줄 수 있어야 함. 단기간 내에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 있으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재외동포 및 그 자녀들이 영국 교육과정 속에서 한국 역사의 어두운 면만 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한국 전쟁에 대한 내용조차도 참전했던 영국의 경험에 근거한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되어야 함.
- 한국 전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좋으나, 한국 전쟁이라는 한 가지 틀에서만 한국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문제임. 언어, 정치, 문화, 지리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교과서 내의 어떤 맥락에서 한국이 소개되는 것이 적절할지 고려해야 함. 다른 나라들은 다 차지하고 '한국'이 하나의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영국의 역사 및 정치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어려움.
- 한국 관련 기술 내용이 확대될 경우, 이를 위해 대신 어느 부분이 축소되어야 할지 고려해야 함.
-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주체 및 한국 관련 기술 내용 작성의 주체, 기술내용의 문화적·정치적 영향력, 세계사 속 한국 역사의 역할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함.

○ 영국 교과서 내 한국관련 기술 내용 확대 방안

- 중등 교육과정 이전 단계인 초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이슬람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과 같이 한국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예: Chinese Day, Japan Day 등과 같이 Korean Day와 같은 문화행사 운영 - 센트럴 랑카셔 대학과 같이 한국학 운영 대학의 협조 가능성 논의)
- 영국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된다면 역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예시 주제 목록에 한국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법이 현실적임. 현재 제시된 4가지 주제는 인디아, 중국, 러시아, 미국 관련 내용임. (Mughal India 1526-1857; China's Qing dynasty 1644-1911; Changing Russian empires c.1800-1989; USA in the 20th Century)
- 어떠한 맥락에서 한국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내용이 유의미할 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한국 역사가 즉시 반영되기는 어려우나 세계사의 더 넓은 맥락에서, 예를 들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의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보다 넓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비교 및 대조 등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며 교육과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음.
- 예술, 정치, 경제, 지리 등 보다 넓은 분야 즉, 모든 과목에서 한국을 포함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영국의 '종교' 과목에서 불교를 믿는 나라를 인도뿐이라고 배웠으나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도 불교문화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이러한 과정을 시작하게 하

는 핵심 사업임. 교사는 자료 없이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음. 역사의 수업 주제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풍부한 자료의 여부임. 교사용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무료로 액세스를 허용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 맛보기 수업, 한국학과와의 연계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 및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

- GCSE 한국어 채택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임. 영국 역사 교과서 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힘이 될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많은 기회를 열어줌. 재외동포가 아닌 영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망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는 영국의 언어 교육을 자극하는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음. 다시 말해, 수요의 이유로 Heritage보다 Interest가 강조되어야 함. 계속해서 GCSE 한국어 채택을 요청하고 문의해야 함.

□ 제안 사항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구 및 모임 필요**

- 관련 정책 연구
 - 재개정시 한국관련 기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국 현지에서 Resources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필요(한국에서 제공되는 것은 편파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임)
- 관련 모임 지속
 -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중간에 **방향성이 맞는지 또는 기술된 내용 등이 반영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소모임 지속적으로 필요**

□ 향후 일정

○ 2차 모임 개요

- 일 시 : 2019. 11.26(화), 11:00 ~ 14:00
- 장 소 : 대사관 7층 회의실
- 대 상 : 1차 모임 참석자 및 영국 교육부, 중등학교 교장, 종교나 미술 등 역사 이외 교과 교사 등
- 안 건 :

<1차 모임> 현지 교과서 내에 나타난 한국관련 기술 내용을 살펴봄

→전체영상

<https://vls.uclan.ac.uk/Play/44272?fbclid=IwAR36jXhbFZHM6NLoCIyV3sbnvxgeWMrty9W6LTjlyPE1A6oex01X-IJVPxg>

→회의록(Full Scripts)

<https://www.uclan.ac.uk/schools/language-global-studies/iksu/research.php>

<2차 모임> 영국 교과서 내 한국관련 내용 확대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 모색**

- Short Term, Mid-Term, Long Term 별 Strategy 수립
- 교과서 내 'case or example 박스'에 한국관련 내용을 넣을 때 어떤 과목이 적합할지 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논의
- 향후 이 사업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 모색(컨택 포인트 추가, Resources 마련을 위한 방안 등)